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4강 하나님의 약속 성취

출애굽기 5장

하나님 이해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야기 한다. “야웨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는 것은 “돌 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요셉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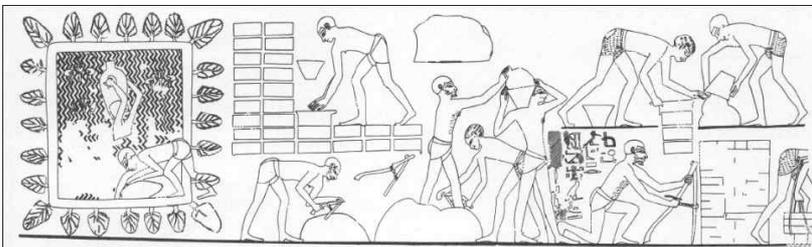
출애굽기 5:1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언자의 사자 공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사 18:4; 43:1; 44:2; 45:1 등).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5-11장에서 빈번하게 관찰된다. 즉, 모세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위치한 중개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모세가 야웨에 대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본문이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히브리인”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애굽 사람에 의해 착취와 억압당하는 사회적 하층민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된다.

따라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사회적 하층민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 피지배자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Rekhmire의 묘



바로 그리고 기록원의 반응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야웨를 예배하게 하라’고 요구한다.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의 요구는 분명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더욱 힘들게 하기 위해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짚을 주지 않고, 짚을 스스로 구하도록 했다(출 5:6-7).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양이 결코 줄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다(출 5:8). 히브리인들은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노역뿐만 아니라, 짚을 구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으므로, 그들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계급은 “감독들과 기록원들” 이다(출 5:6, 10, 14). 이들은 결코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감독”(노가심)은 “기록원”(쇼테르)을 때리는 자들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록원”은 “감독”에게 맞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기록원”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근거로 다수의 피지배 계층을 통치하기 위한 소수 지배 계층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

19절에 기록된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라는 번역은 아주 흥미롭다. 기록자들이 곤경을 온 몸으로 겪어야 하는 것처럼 생동감있게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서 곤경에 빠진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인지 혹은 “기록자들”인지는 불분명하다. 성서는 오히려 백성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묘사하기 때문이다(출 5:23). 여하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며 애굽과 관계가 악화된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모세의 반응

출애굽기 5:14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 장면은 모세의 과거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광야로 나가기 전에 모세는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았다. 출애굽기 2:11에 따르면 모세가 그를 쳐서 모래에 묻어버렸다고 보도한다.

출애굽기 5:14은 그것과 상반되는 장면을 서술한다. 여기에는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모세는 과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맞고 있는 ‘기록원’들이 애굽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출애굽기 6장

나는 야웨니라.

출애굽기 6장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다시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의 소명으로 보기도 한다. 이미 3-4장에서 모세의 소명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겠지만, 3-4장과 유사한 언급도 확인된다.

하지만, 3장과 6장은 차이가 등장한다. 가장 큰 차이를 언급하자면, 소명의 장소이다. 3장은 시내 산 계시로 볼 수 있다면, 6장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만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사상을 알아야만 한다. 고대에서 국가의 범위는 곧 신의 통치 영역이기도 하다. 각각의 국가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은 그 지역을 관장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야웨라 불리는 신이 애굽의 신이 관할하는 지역을 침범하여, 신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묘사한다.

이것을 통해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출애굽기 6:2-12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야웨니라”(아니 야웨) 이다(출 6:2,6-8). 이것은 이후에 애굽 재앙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관찰되는데, 야웨 자신을 주체적 행위자로 선언하는 것이며,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 이다.

언약

출애굽기 6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은 바로 “언약”(베리트) 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출애굽기 6:4, 5에서 확인되며, 소위 언약 공식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출 6:7). 주목할 것은 이 언약 공식은 구원 행위(가알)로 구체화 된다는 점이다.

야웨는 모세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고지(告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제시한다.

야웨는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로 한 것이다.

4절에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이야기와 연결된다. 창세기 17장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 6:5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구속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땅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언약된 것이므로, 땅은 구원의 선물이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스스로 실행하겠다고 선언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체결한다. 앞선 아브라함 언약과 차이점이라면, 출애굽기 6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독자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묘사한다.